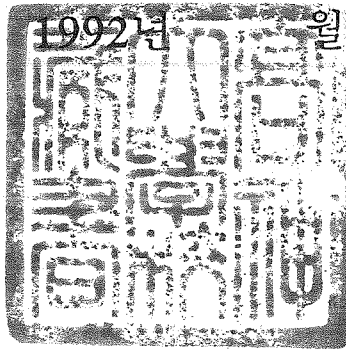


CT
290.17
D1152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 비교

지도교수 : 최 덕 성

이 論文을 석사학위 論文으로 提出함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DM00001006

신 학 과
이 동 원

목 차

I. 서론	3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B. 연구방법	4
II. 종교개혁과 성경	6
A.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위치	7
1. 일반적인 상황	7
2. 성경과 교회	8
3. 성경해석	9
B.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성경	10
1. 종교개혁의 발생원인과 성경	10
2. 종교개혁까지의 성경 중심 운동	11
C. 루터와 칼빈의 사상배경과 성경	13
III. 성경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입장	18
A.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18
B. 성경의 권위	26
C. 성경과 전통	34
D. 신구약 성경의 관계	38
E. 성경의 내용	40
1. 그리스도	40
2. 율법과 복음	41
IV. 결론	44
참고문헌	47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때 하나님은 교회부흥이나 개혁당시에 항상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개혁가들은 항상 성경을 귀중히 여겼다.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칼빈은 중세교회가 말씀보다 전통을 더 앞세우며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짚려고 한 것을 거부하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삼고 성경을 성경으로 알려고 했다.

두 개혁가의 개혁으로 중세교회 천년의 암흑은 물러나고 개혁의 여명이 밝아왔다.

루터가 발견한 진리는 종교개혁의 장을 열었고 칼빈은 개혁이라는 구조물을 완성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차이나게, 환경이 다른 조건에서 개혁을 시도하였다.

두 사람이 가졌던 성경관은 후대의 개신교 신학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성경관은 과연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

루터는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기 까지의 큰 체험을 한 배경이 있다.

이 배경이 그의 성경관 형성에 다소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칼빈은 일찌기 기독교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사상적인 배경이 그의 성경관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이 두 사람은 성경관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같은 견해를 가졌으나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강조의 정도 차이였다.

루터와 칼빈 모두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말씀이고 신적인 권위가 있으며 전통 위에 있는 유일한 최고의 권위이며 그리스도를 축점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대하여 동일한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에, 성경 어디서나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관련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 한 전통을 수용하였고 신구약 성경을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대립적인 관계로 보았다.

반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 말씀 자체로서의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경이 허용한 전통만 수용하였고 신구약이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음을 보았으며 또한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B. 연구방법

루터와 칼빈 두 개혁가의 성경관에 대하여

첫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측면에서

둘째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측면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의 사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종교개혁과 성경과의 관계를 제 2장에서 살펴볼 것

이다. 여기서는 먼저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성경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루터와 칼빈이 개혁전에 가졌던 사상배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두 개혁가들이 발견했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의 관계, 성경의 권위, 성경과 전통과의 관계, 신구약 성경의 관계, 성경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I. 종교개혁과 성경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야에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Wittenberg) 본성 교회 정문에 면죄부의 신학적 전제를 주(主) 공격 삼은 95개조의 신조문을 작성, 게시하여 불을 붙이자 이 개혁의 불길은 삼시간 독일 전역으로 번져 나갔다. 이 불길을 끄기 위하여 교황청에서는 아우스부르크(Ausburg)제국회의를 열어 카제탄(Cajetan) 추기경을 파견하여 루터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루터가 사는 색소니 지방을 통치하는 프레드릭 영주가 루터를 보호하고 나서자 카제탄은 루터와 만나 토론을 거부한 채 무조건 루터의 의견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루터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성경에서 증명될 수 있으면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철회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1519년 스콜라 신학자요 교회법의 내가인 존 에크(John Eck)와의 라이프치히(Leibzich) 공개토론에서 에크는 루터가 이단임을 실토 하도록 몰아 붙이자 루터는 성경이 교황보다 우위이며 종교회의는 잘못되었음을 변론하였다.

그 후 루터는 “독일귀족에게 보내는 글”(1520)에서 교황권을 부인하면서 교황이 성경보다 높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이렇게 하여 종교개혁의 불길은 온 유럽으로 파급되었으며 이 종교개혁은 기독교 발생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성 어거스틴이 그러했던 것 보다 더 깊이 복음의 내용에 들어 갔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이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였고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였기 때문이다.¹⁾

1) 정 정숙, 「종교 개혁가들의 교육 사상」(서울:총신대학 출판부, 1989), 24.

여기서 종교개혁가들이 한결같이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고 외쳤다면 과연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의 위치가 어떠하였기에 그렇게 위치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종교개혁이전의 성경의 일반적인 상황과 교회에서의 성경사용과 성경해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종교개혁을 발생케 한 요인 중에서 성경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루터와 칼빈이 가졌던 개혁사상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A.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위치

1. 일반적인 상황.

인문주의에 대한 강조와 인쇄술 발명의 결과로 15세기 후반에 성경이 벌게이트(Vulgate)번역으로 널리 반포되었고 많은 위클리프(Wycliffe)번역 사본이 유통되고 있었다.²⁾

그러나 일반인들은 여전히 무관심과 무지로 성경을 접하지 못한채 필사본들이 높은 성직자나 또는 진지한 학생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은 주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역으로 좀 큰 수도원, 카톨릭 도서관, 군주들 그리고 유럽 전역의 법정에서도 접할 수 있었다.³⁾

학생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었고 원어 성경은 실제로 많지 않았다.

2) 최 현수, “루터의 종교개혁과 성서” (신학석사 학위논문, 서울신학대 학원, 1988), 6.

3) Ibid.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동방에서는 복음서를 중요시하였고 서방교회에서는 구약을 다루기를 좋아하고 헬라어 보다는 히브리어 연구에 더 관심을 두었다. 히브리 백성은 곧 모세의 언어를 말하는 백성이며 율법을 준수하였고 성서역사에 관한 방대한 전통을 지닌 백성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히브리어나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이러한 경향은 16세기의 공교회의 허위를 밝혀주는 것이었다.⁴⁾

신약성경 연구를 통한히 하는 것은 결국 성경과 신앙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기 못한 것을 보여 주었다.

별게이트역은 교양있는 자들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로 구약을 연구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헬라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고 학생들이나 학자들은 라틴어 신약성경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이 시기까지 라틴어를 제외한 모든 성경연구는 제재를 받았다.⁵⁾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세기 반 전에는 급속한 문맹퇴치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어 검열이 강화되고 핍박이 일어났는데 1513년과 1520년 사이에는 독일의 대학에서 히브리어 성경 연구를 근절시키는 운동이 조장되었다.⁶⁾

2. 성경과 교회

종교개혁 이전의 평신도들은 대부분 문맹이었고 심지어 성직자 중에서도 문맹이 있었다.

4) 최 현수, 7.

5) 최 현수, 8.

6) Ibid.

14, 15세기에는 평신도들이 글자를 알 수 있는 지역에서 성경의 일부분을 자국어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15세기에는 이러한 부분역들을 얻으려고 시도한 수도사나 수녀들은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성경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을 금하였고 오직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한마디로 중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식했으며 성직자 까지도 그러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길은 라틴어역과 교부들의 문헌에 의존하는 것 뿐이었다.

3. 성경해석

성경을 읽은 후에 따르는 것은 해석의 문제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신도의 개인 해석은 금지되었으며 교부, 교사, 교회회의에 해석이 맡겨졌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성경은 신비로 가득찬 책이라 생각하여 신비적 방법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⁷⁾

그리고 풍유적 해석이 유행했다. 중세기에는 매 성경의 본문이 내개의 의미를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중세에는 무절제한 성경해석이 성행했으며 신비적인 뜻을 찾기에 노력했다. 그리고 성경해석이 전통과 교회의 교리에 적응되어지는 경향으로 흘렀다.⁹⁾

이 시대에는 단순하고 새로운 해석원리는 발전되지 않았으며 성경주해는 교회의 전통과 권위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¹⁰⁾

7) 최 현수, 13.

8) 문자적 의미. 비유적 의미. 풍유적 의미. 유추적 의미.

9) 박 형룡, 「성경해석의 원리」(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63.

10) 「성경해석학」, 22.

B.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성경.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기 전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었다.

본장에서는 종교개혁이 발생한 이유들 중에서 성경이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1. 종교개혁의 발생원인과 성경

종교개혁은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일어났다.

종교개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크게 교회내적인 것과 교리적, 사회적, 영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교회 내적인 것으로는 교회의 물질적인 탈선과 부패, 성직의 매관매직에 따른 교회 구조적인 병폐, 성직자들의 낮은 교육 수준, 성직자의 성적타락을 찾아볼 수 있다.

교리적 원인으로 신학의 사변화와 단순성의 결여가 있었고, 기존 계급체계의 변화는 사회학적으로도 종교개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교권다툼으로 인한 환멸과 함께 교황권의 약화와 대중들의 영적경험을 만족시킬 새로운 종교적 열심의 물결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영적인 요인도 있었다.

2. 종교개혁 까지의 성경중심 운동

종교개혁은 성경을 앞세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성경을 강조한 것은 종교개혁전부터 이미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11 수도회에서 인문교육을 강화하여 글을 읽을 수 있게하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양심에 의해 성경이 해석되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어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국가주의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데 자극을 주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종교회의의 운동을 통해 교황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권위가 성경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을 중시하여 외친 분으로서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 - 1384)는 성경은 교회의 소유이며 오직 교회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¹⁾ 즉 교회는 택함받는 성도로 구성되었기에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성경은 교회의 소유이며 교황의 손에 들린 성경을 교회로 돌려줘야 하며 성경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보헤미아 지방의 프라하 대학교 총장이었던 존 후스(John Huss, 1360 - 1451)는 성경이야말로 교황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심판할 수

11) 유스토 L. 곤잘레스, 「중세교회사」 서 영일역(서울:은성, 1990), 205.

있는 궁극적인 권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교황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¹²⁾

이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권위를 교황에서 성경에 두는, 권위에 대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오컴(William of Occam, 1280 - 1349)은 후기 스콜라 철학의 유명론자로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¹³⁾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인간에게 줄 수 있는고로 참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모든 것을 읽어야 하고 교황 및 전체 종교회의의도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성경만이 무오하다고 주장하여¹⁴⁾ 종교 개혁 이전에 결정적인 성경권위를 내세웠다.

이것은 14, 15세기 신학자들에게서 권위의 문제야말로 특히 중대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¹⁵⁾

종교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자들은 계시된 말씀 즉 성경의 권위를 내세웠다.

이성의 판단에 의해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무오한 성경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은 바로 이들 선구자의 성경관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 유스토 L. 곤잘레스, 「중세교회사」, 209.

13) 유스토 L. 곤잘레스, 「중세교회사」, 233. “그 어떤 교리나 권리가 합리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시되었기 때문에 믿고자 하였다.”

14) 유스토 L. 곤잘레스, 「중세교회사」, 233.

15) Ibid.

C. 루터와 칼빈의 사상배경과 성경.

종교개혁은 한 두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되고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때가 이르매 물고를 여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는데 이들이 바로 루터와 칼빈이었다.

종교개혁을 꽃피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루터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와 칼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를 병행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루터는 추진력을 제공했고 칼빈은 정지작업을 했다.¹⁶⁾

본장에서는 루터와 칼빈의 사상을 살펴봄으로 그들의 성경관 형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종교개혁 신학연구와 전통에 있어서 루터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크다. 루터의 중요성이란 단지 종교개혁자라는 개신교 창시자로서의 비중을 넘어서서 개신교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사상과 성경의 절대권위 사상과 실존적 믿음에 의한 의인사상을 어거스틴 이후 근 천오백년 동안 상실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깨뜨리고 재발견한데 있다.¹⁷⁾

그러나 루터가 그렇게도 많이 무시되는 이유는 첫째로 무엇을 읽어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¹⁸⁾ 그가 남긴 주석들, 요리문답, 찬송들을 항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목록이 너무 길고 쉽게 읽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둘째는 칼빈과는 달리 루터는 조직적인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16) 박 형룡, 67.

17) 휴 T. 커어 편, 「루터신학개요」 김 영한(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출판국, 1991), 19.

18) 휴 T. 커어, 37.

다. 그의 신학의 실체를 전하는 자신의 작품이나 책은 한권도 없다.¹⁹⁾

칼빈이 조직신학자였음에 비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설교자라고 말할 정도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칼빈은 신학자 못지 않은 설교자였으며 루터는 조직신학을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논문과 많은 설교들은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확실히 교리적이다. 그러나 루터는 이전의 조직신학에의 시도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²⁰⁾

루터가 평생동안 다룬 주제는 죄와 구원의 문제였다. 루터는 회심 이전에 늘 죄와 구원의 문제로 고민했고 그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과 고해성사를 했으나 하면 할수록 죄의식은 더욱 강해져만 갔다.²¹⁾

이러한 루터에게 수도원장 대리인 존 스타우피츠(John Staupitz)는 진정한 참회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그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그는 루터를 도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하고 성서석의학 교수직을 맡도록하였다.²²⁾

루터는 시편강의를 시작하면서 성경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시편을 강의할 무렵(1513 - 1515)에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대발견의 시작이었다.

그의 대발견은 로마서를 강해(1515 - 1516)하면서 확실해졌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다.

19) Ibid.

20) 휴 T. 커어, 38.

21) 유스토 L. 곤잘레스, 「중세교회사」, 31.

22) 최 현수, 19.

이때까지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는 능동적이고 보복적이며 인간들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도록 요구하는 본질적인 의(essential righteousness)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하나님의 의”(justia)가 수동적 의로움,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인간들에게 주신 덧입는 의(imputed)임을 깨달았다.²³⁾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와 죄용서의 계시였다.

칼빈은 루터처럼 극적인 회심의 체험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단 「시편주석」을 통해 그의 생애에 있어 중대한 전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칼빈은 역사가들에 의해 “종교개혁의 안디옥” 또는 서남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²⁵⁾ 불리워질 만큼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독일 종교개혁을 직접 목격하는 귀한 경험을 하였다.

칼빈은 이곳에서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로마서 주석」을 간행하였는데 그의 성서 연구가 「기독교 강요」의 개정판을 내는데 밑받침이 되었다.²⁶⁾

곧 그의 신학사상은 성서연구로 부터 출발되어 철저히 성경중심이었다.

칼빈은 루터를 존경하고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²⁷⁾ 칼빈은 루터와

23) 루이스 W. 스피츠, 「종교개혁사」 서 영일역(서울:기독교문서 선교회, 1989), 62.

24) “하나님께서는 나를 갑자기 회심시키셔서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보다 교훈하기에 쉽도록 인도하셨다.”(루이스 W. 스피츠, 202.)

25) 홍 치모편, 「칼빈과 낙스」(서울:성광 문화사, 1991), 30.

26) 홍 치모편, 39-40.

27) 휴 T. 커어, 19-20. “칼빈은 이 강요 초판에 있어서 어거스틴과 특히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는 달리²⁸⁾ 넓은 의미에서 인문주의자 였다고 할 수 있다. 단 세속적 인문주의자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기독교 인문주의자(Christian Humanist) 또는 성서적 인문주의자(Biblical Humanist)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²⁹⁾

그러므로 칼빈의 성경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칼빈이 기독교 인문주의자로서 훈련을 받고 교육받았다는 점이다.³⁰⁾ 이러한 훈련은 그의 주석방법, 초기 기독교 신학자 연구, 특정 기독교 철학의 수용, 이교도 유산을 남긴 수많은 인물을 존경하는 것, 기독교인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한 것등에 영향을 미쳤다.³¹⁾

성경적 인문주의자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종교개혁가들은 고전중에서도 특히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저서를 연구함으로써 얻은 지식을 성경연구의 보충재료로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개혁가들은 고전연구가 성경과 교부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³²⁾

칼빈은 오랫동안 교부들을 인용했고 특히 어거스틴의 견해에 상당히 의지해 왔다.³³⁾

칼빈은 수사학과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수사학 이론은 그의 신학방법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³⁴⁾

칼빈은 진리의 단순성과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의 문제에 역점을 두었다. 칼빈에게 있어 복음이란 본질상 설득적인 힘을 가진 일종의 “신적 수사학”(Divine Rhetoric)이었기 때문이다.³⁵⁾

28) 홍 치모, 126. “마틴 루터는 중세시대의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으나 당시의 인문학, 문예부흥의 영향은 받지 않았다.”

29) 홍 치모, 24.

30) “칼빈은 데살로니가 서문에서 자신의 인문학 교수 방법이 유명한 인문주의 학자 마투랭 꼬르디에(Marturin Cordier)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홍 치모, 126.)

31) 도날드 K. 맥킴의 공편, 「칼빈에 관한 신학 논문」, 칼빈총서 1집9권,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서울:기독교 문화 협회, 1989), 63.

32) 홍 치모, 24-25.

33) 루터는 “교부들 중의 누구도 따르지 않았고 사실 그들의 신학적인 해석에 대해 다소 낮게 평가했다.” (휴 T. 커어, 38.)

34) 홍 치모, 126.

칼빈의 젊은날의 인문주의적 교양과 지식습득은 훗날 그의 위대한 신학적 저술에 반영되어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게 했다. 그것은 칼빈의 신학논고와 신구약 성경주석이 입증해 주고 있다.³⁵⁾

루터와 칼빈의 개혁사상 배경에 있어 루터는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던중에 발견한 복음이 그의 성경관에 영향을 미쳤고 칼빈은 일찌기 부터 교육 받아온 성경 인문주의 사상이 그의 성경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5) 도날드 K. 맥킴외, 65.

36) 홍 치모, 18-19.

III. 성경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입장

A.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루터의 사상과 그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Das Wort Gottes)에서 기원한다. 그의 종교적 체험과 신학적인 발전은 “말씀”에서 나왔으며 또한 “말씀”에 배치되는 것은 모두 제거되었다.¹⁾

다시 말해서 루터의 신학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지식을 다룬 영광의 신학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만 계시된 것을 다룬 십자가의 신학을 서로 대비시킨 것으로 신학의 기초를 이성도 경험도 아닌 말씀으로 삼았고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했다.

루터에게 있어 말씀의 신학이 그의 신학이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

루터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여 말씀이란 복음과 사죄에 관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운반자>라고 하였다.²⁾

하나님의 말씀가운데 그의 힘과 공지가 있었으며 이 “말씀”만이 그의 유일한 선포의 대상이었다.

루터의 이 “말씀”은 영속적인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며 인간들이 진지하게 연구해야하는 것으로 보았다.³⁾ “말씀” 다만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 그의 활동 및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오직 신앙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⁴⁾

1)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서울: 컨콜디아사, 1961), 119.

2) 정 정숙, 25.

3)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120.

4)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122-123.

말씀의 신학이 루터의 신학이었듯이 그의 신학은 또한 성경의 신학이었다.⁵⁾ 고로 그의 신학은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며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루터의 이해를 살펴봄으로 말씀과 성경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용어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했다.

첫째,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육신한 “말씀”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표현이신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⁶⁾ 또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

둘째, 선포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와 근본적인 특수관계를 가진다.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말씀으로 보았다. 이것이 구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말씀하신다.⁷⁾

루터는 “말씀”과 “설교”라는 말을 종종 교대할 수 있도록 사용하였다. 그는 바르게 선택된 방법대로 말씀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일반 크리스찬들의 매개를 통해 인간들에게 증거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5) 지 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65), 98.

6)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124.

7) 청 정숙, 27.

강조하였다. 여기서 루터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강조하였고 자신 역시 많은 설교를 했던 배경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이 기록된 말씀의 전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다.⁸⁾ 또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의 지상생활을 알 수 있다.

루터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란 용어가 성경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만 루터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함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어로 사용하였다.⁹⁾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루터를 성경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모종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주의적 개념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간의 말(성경속에 있는)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바르트주의 이전의 바르트주의적 개념을 진척시켰다고 시대착오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¹⁰⁾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은 선포된 말씀과 관련하여 두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루터는 보았다.

첫째 기능은 성경은 선포된 말씀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루터는 당시 교회쇠퇴의 주원인이 설교에 있음을 확신하고 성경에 대한 무지와 소홀히 대하는 점이 빈약한 설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성경주석에 힘을 쏟은 이유도 여기에

8) 정 정숙, 26.

9)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131.

10) 이 환봉, “성경권위에 관한 개혁주의의 견해”, 「고신대 논문집」, 83.

있었다.

루터는 교회의 설교가 그 자체로서는 유지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구전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필요로 하였다.¹¹⁾

두번째 기능은 선포할때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루터는 선포된 말씀이 잘못된 교사들에 의해 기록된 말씀과 조금씩 다르며 왜곡되어 있음을 발견했다.¹²⁾

그는 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여 잘못된 교사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¹³⁾

루터는 크리스찬들에게 교훈하기를 인간의 지혜로 하여금 말하게 하지 말고,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일치시킬 방법을 구하려고 힘쓰지 말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였다.¹⁴⁾

칼빈의 신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모든 방면으로 일관하여 관철하려는 은총의 사상이었다. 칼빈의 신학은 말씀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칼빈은 성경을 바탕으로하여 그의 사상을 정립시켰다.

칼빈신학에서 성경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모든 신학의 기본적이고 첫째되는 자료요 그 논리구조의 표준이 된다.¹⁶⁾

11) 최 현수, 33.

12) "루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계시를 주관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였다." (지 원용, 「루터의 사상:교육과 신학」, 134)

13) Ibid.

14) 지 원용, 「루터의 사상:교육과 신학」, 134.

15) 정 정숙, 153.

16) 정 정숙, 152.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로 하여 신학이론을 전개시켰다.¹⁷⁾

곧 칼빈은 그의 신학적 사고의 출발점을 성경 그 자체에 설정하고 그의 신학이론을 전개시켰다.¹⁸⁾

칼빈은 「강요」의 첫머리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두 종류, 즉 신 지식과 인간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자신에 관한 지식은 절망과 불합당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야 함을 발견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데 있어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구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본질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며 인간이 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별을 연결시켜 주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계시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 계시는 먼저 자연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된다.

칼빈은 자연계시를 확실히 믿고 따랐다.¹⁹⁾ 이 자연계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충분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일반계시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앞에 충분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²⁰⁾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

17) 프랑시스 웬델, 「칼빈의 신학 서론」, 칼빈총서, 제1집1권,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역 (서울:한국 기독교 문화협회, 1986), 162.

18) 홍 치모, "Calvin과 Knox", 「신학지남」 58권, 2집 228호 (1991. 여름):125f

19) 윌리엄 팩 암스트롱, 「칼빈의 종교 개혁 사상」, 칼빈총서, 제1집 5권,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울:한국 기독교 문화 협회, 1986), 150.

20) 윌리엄 팩 암스트롱, 153.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지식과 자연계시를 통해서 완전한 신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완전한 신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초 자연적 행위를 의존하여야 했다. 이 초 자연적 행위는 자연이 보여 주는 것보다 분명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이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명되어져야 했다.

이러한 이중 신적 역사를 통해 완전한 신지식은 우리에게 전달된다.²¹⁾

이러한 계시가 곧 특별계시인데 특별계시란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악화된 영적 시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준비된 보조물이다.²²⁾

특별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칼빈은 루터와 같이 삼중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가르키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인간으로 성육하셨다.

이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주로서 혹은 중보자로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격, 모든 사업,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그리고 재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²³⁾

21) 윌리엄 팩 암스트롱, 150.

22) 윌리엄 팩 암스트롱, 176.

23) 황 승룡, "종교 개혁자들과 신교 정통주의자들의 말씀론 비교", 「기독교 사상」 327 (1985.9): 160.

다음으로 칼빈에 있어서도 루터와 같이 신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어 인류를 구속하신다. 그런데 말씀은 성경의 조명과 감화에 의해서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의 족장들, 예언자와 예수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²⁴⁾

성경은 원초적으로 선포된 말씀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예언자들의 글과 선지자들의 설교에 기초해 있다고 한다.

교회는 선포된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한다.²⁵⁾ 칼빈에게 있어 성령의 감화와 조명에 의한 설교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²⁶⁾

칼빈은 성경을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주장한다.²⁷⁾ 이처럼 칼빈은 루터의 경우처럼 복음 중심적 성경이해를 하면서도 기록된 말씀을 강조한다.

칼빈은 성경을 성경기자 자신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 칼빈의 사상은 여기서 두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해준다는 점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칼빈은 여기서 기독교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조화(accmmod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성경의 언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distance)가 있어 인간이 신

24) 황 승룡, 158.

25) Ibid.

26) Ibid.

27) "칼빈은 성경속의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사역에 의하여(Inst. 1.7.5)하나님의 입으로 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Inst.1.7.1)'으로 이해하였다." (도날드 맥킴외, 「칼빈에 관한 신학 논문」, 74.

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해에 맞추어서 즉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죄지은 인간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

칼빈의 관점에 따르면 성경은 인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특별계시를 문서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Inst.1.5.1)

문서차원 특별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즉 특별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유는 인간이 이것을 머리속에만 가지고 있다가는 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²⁸⁾ 이상과 같은 칼빈의 견해는 루터의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과 관련한 두가지 기능과 비슷한 의미이다.

루터와 칼빈은 그들의 사상에 있어서 말씀과 성경에 신학의 기초를 두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루터는 그리스도에 강조를 둔 것²⁹⁾에 비해 칼빈은 기록된 말씀에 강조를 두었다.

루터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대비시켜 그의 신학을 전개해 나갔는데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큰 차이를 인식하며 계시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즉 루터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중적인 지식, 즉 일반적인 지식과 특별

28) 윌리엄 팩 암스트롱 편저, 175.

29) 카터린더 버그, 「말틴루터」 이 현주 옮김 (서울: 컨콜디아사, 1990), 36: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다. 그 다음으로 선포된 또는 발언된 말씀을 의미한다.”

한 지식을 말하면서³⁰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만 알 수 있을 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직 특별한 지식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성(distinction)과 유화성(accommodation)을 이용, 신지식을 말하면서 계시의 필요성과 역할을 말하였는데 칼빈이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이 문제를 다루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B. 성경의 권위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사상은 철저히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세 교회가 주장하던 잘못된 권위관을 시정하고 성경을 최고 권위로 여긴 것이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경의 신적권위와 무오성은 심각하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에 어떤 것을 첨가할 수 있는가 혹은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표준인가 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해서 개혁자들의 중심에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와 “성경의 충족성”(Sufficiency of Scriptura)의 원리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였다.³¹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성경의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니었다.

30) 루터는 일반적인 지식은 철학적 지식 혹은 율법적 지식이라고 하며 특별한 지식은 신학적 지식 혹은 복음적 지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지식의 관계는 율법과 복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관계와 같다고 하는데 이 두 지식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은 칼빈이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조화를 이루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31) 이 환봉, 81.

단순히 면죄부의 판매가 성서의 교훈과 상반되는 것을 밝히게 되었는데 교황의 권위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카톨릭 권위자들과 토론하는 가운데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³²⁾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후에 그는 교회회의도 과오를 범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신적권위에서 끌어내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루터는 성경의 신성함에 대해서 말할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할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거듭 확인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외적인 증거로서 핏박과 환란중에서도 보전된것을 말하였으나³³⁾ 루터는 이러한 외적인 증거 이외에 보다 더 근원적인 내적인 증거를 내세웠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근거는

첫째로 기록한 저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으며

둘째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⁴⁾

루터에게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들이 영감 되었음을 의미한다.³⁵⁾ 성경은 하나님의 힘으로 또한 그의 영감으로 쓰

32) 이 장식, 「기독교 사상사」(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7), 106.

33) 도널드 디 머레이 편집, 「루터에게 듣는다」 윤 종석 옮김(서울:두란노서원), 40-41.

34) 황 승룡, 156.

35) 이 환봉, 83.

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성령에 의한 영감때문에 성경 가운데 계시된 진리가 모든 낱말까지 미치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낱말을 정확하게 만들며 성경 개개 단어가 중요하고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였다.

루터에게는 메시지의 영감과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인 언어의 영감 사이에 차이가 없다.

루터가 주장하는 바로는 선지자들의 입에 성령께서 어휘를 주셨고 손에 있는 펜으로 글자를 쓰셨고 마음에 문자를 찍으셨다고 하며 성령께서 단어와 문자까지 책임지셨다고 한다.

성경의 영감은 단어(어휘)뿐만 아니라 표현방법(말씨)에 까지도 미친다. 즉 어휘 뿐만 아니라 표현법까지도 성령께서 사용하셨으니 성경은 신적인 것이다.³⁶⁾

그런데 성서의 저자들은 성령의 도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받아 쓰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저들은 상위(相違)한 배경과 특징과 여러가지 기능과 관심을 가진 개인들로서 그들 각자의 책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적인 거룩한 것임과 동시에 성경의 개개 저자들의 저서인 인간적인 것이다.³⁷⁾

여기에서 루터는 축자영감과 유기적영감을 받아 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두번째 근거로 루터는 성경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내세웠다.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은 루터의 성경주석의 가장 특이한 통찰이다.

36) 이 환봉, 84.

37)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135.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졌다. 그 분이 알려지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은 그 의미를 지닌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보아야 한다.³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중심 내용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루터는 성경이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인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³⁹⁾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권위를 말씀에 부여하실 수 있으므로 루터에게 있어 성경권위의 궁극적인 근거는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하였다.⁴⁰⁾

사실 루터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성경의 전부였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의 형식을 간과하지 않는다. 루터는 성경 어디에서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듯이 성경전체를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신적인 권위를 지닌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루터가 성경의 완전 영감설을 받아들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루터는 성경 권위를 성경의 무오성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성경의 신적 기원과 그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기에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⁴¹⁾

루터는 어거스틴이 성 제롬에게 주는 편지를 인용,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⁴²⁾의 “성경은 잘못을 범할 수 없다”⁴³⁾고 자주 말하고 기술하기도 했다.

38) 이 환봉, 84.

39)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133.

40) 이 환봉, 85.

41)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140.

42) “나는 성경만이 무오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공의회와 교회들에 관해서’ 「루터전집」, 제5권, 147f. 휴 T. 커어 편저, 6. 재 인용)

43) Eroange Edition of Luther's Work 63, 379,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138. 재 인용.

루터는 성경의 내용과 형식에서 정확 무오하기에 성경을 읽을때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다고 말할 수 있었다.⁴⁴⁾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그릇된 성경 권위관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이성의 논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을 판단할 권한이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⁴⁵⁾

칼빈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거부했다. 칼빈은 교회란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했다.⁴⁶⁾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처럼 성경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써 생각할 때에만 신자들 가운데서 온전한 권위를 얻는다”(Inst.1.7.1)고 하면서 칼빈은 성경의 권위가 성경 그 자체에 있다고 하였다. 즉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하였다.

칼빈은 수사학적 표현을 빌어⁴⁷⁾ 성경의 진리가 자명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수사학적 표현은 성경의 진리가 자명함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Inst.1.7.2)

한편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인간적인 증거⁴⁸⁾를 알았

44) Eroange Edition of Luther's Work 33.24. 지 원용, 「루터의 사상 : 신학과 교육」, 131. 재 인용.

45)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거나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은 거짓된 책략이다”(사무엘 던 편, 「요한 칼빈의 진수」 김득용 옮김(서울:성광문화사, 1985), 15.)

46)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반이 된다면 성경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Inst.1.7.2)

47) “성경의 권위에 대한 증거를 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는 어떤 근거로 빛과 어두움, 흰색과 검은색, 단것과 쓴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Inst.1.7.2)

48) 성령의 장엄성, 최고성, 기억들과 예언, 단순성, 천상적인 성격, 신약의 권위, 교회의 우주적인 일치성, 순교자들의 믿음등.

는데 칼빈에게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외적인 주장들은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연합함을 돕는 간접적인 도움으로서” 유용하다. (Inst. 1, 8, 13) 외적인 증거들은 성령이 성경을 수용하도록 한 후에야 비로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도와 준다고 하였다.⁴⁹⁾

칼빈은 성경의 권위가 “성경 본래적으로 있는 권위” 즉 객관적인 증거와 “성경은 권위가 있다고 하는 우리의 확신” 즉 성령의 내적 증거 중 어느 것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가 신적 화자(話者)인 하나님에게 귀속하고 있고 본래 성경의 성경된 것에 권위가 귀속하여 있다는 식의 말을 많이 함으로⁵⁰⁾ 성경 자체에 그 신적 권위가 있음을 말하였다.

성경의 최고의 증거는 항상 화자인 하나님에게서 찾아내야 한다. 성경에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저작권이며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이 저작권이 결과 된 것은 결코 아닌 것이⁵¹⁾ 칼빈의 성경 권위관의 첫번째 국면이다.

칼빈은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임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면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가 성경의 기원과 권위에 대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수단인 것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은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확신을 줄 뿐이지 성경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49) 도날드 K. 맥킴외, 78.

50) 존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 사상」 나 용화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0), 68.

51) 존 머레이, 71.

받기 이전에 이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성령에 의해 성경의 권위가 보증된다면 그 권위가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됨이 없이 함께 일한다. 성령이 말씀을 떠나서는 증거사역을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말씀은 능력도 효능도 발휘할 수 없다.⁵²⁾

칼빈은 성경의 객관적 증거와 성령의 증거가 인간의 심령 속에 신적 지식을 창출하는 목적 수행을 위해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병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⁵³⁾

칼빈이 “성경은 권위있다”(authoritative)는 말을 할 때 그것은 곧 영감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칼빈은 필기자인 인간과 성경본래의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을 “중개인”으로 보지 않고 성경 기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수하신 것을 충실히 기록한 일종의 “공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령의 기관(the organs of the Holy Spirit)으로서 역할을 하였다.⁵⁴⁾

여기서 칼빈은 어느정도 인간은 하나님이 구수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썼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⁵⁵⁾(Inst1.6.2)

그리고 칼빈은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서 완전히 능동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성령의 지시에 근거를 두고서 율법과 예언은 ... 성령에

52) 도날드 맥킴, 80.

53) 윌리엄 팩 암스트롱 편저, 194.

54) 윌리엄 팩 암스트롱 편저, 169.

55) 여기서 “구수”라는 말은 영감의 양식이 아니라 영감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다.

의해 받아 쓰여진 것이라고 했다.⁵⁶⁾

위에 언급한 사실을 볼 때 칼빈이 축자영감 견해를 나타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영감은 기계적 영감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자들은 주제를 다루고 일을 계획하고 사실들을 선택하고 자료의 순서를 지적하고 어휘나 문체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과 인격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⁵⁷⁾

이것을 통해서 또한 칼빈은 성경의 유기적 영감 견해를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경의 영감이 성경 내용 전체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모든 성경은 똑같은 수준이며 모두 다 영감을 받은 것이다⁵⁸⁾라는 것으로 성경의 완전 영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칼빈에게 있어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결론내릴 수 있다.

성경권위의 두번째 국면은 칼빈에게 있어 성경의 권위가 성경 자체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적인 교훈에 의존한다. 즉 그것은 역사속에서 계시하셨고 지금 성경이란 형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⁵⁹⁾

이 중심 메시지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 졌는데 칼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 된다. 그리스도가 신앙의 목적이

56) 이 환봉, 89.

57) 이 환봉, 89.90.

58) 프랑시스 웬델, 171.

59) 이 환봉, 94.

며 목표이다.⁶⁰⁾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격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만일 성경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죽은 문자 문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까지 말한다.⁶¹⁾

칼빈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계시 자체이며 성육신하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부조화가 없으며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에 완전하며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루터와 칼빈은 다같이 성경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성경이 정확무오한 말씀이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권위가 있으며 또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메시지로 삼고 있는것이 권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루터는 성경이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인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성경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비해 칼빈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성경 모든 부분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루터와 칼빈은 다같이 성경의 완전영감, 유기적 영감, 독자영감 개념을 조직화 하지는 않았으나 본 견해를 분명히 지지하였다.

C. 전통과 성경

15세기말까지의 전통에 대한 로마교회의 공식적 입장은 성경이 성도의

60) 도날드 K. 맥킴, 80.

61) 이 환봉, 95.

지식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도적 전통들도 서로 지식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앙의 유추에 관련된 이성론 존재 유추(reason and the analogy of being)가 성경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⁶²⁾

그러데 여기서 누가 교회전통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일어났다. 교황인가? 교회회의인가? 중세기 오랫동안 교회전통을 옹호하는 무리와 감독제도라는 교황권을 옹호하는 부류의 갈등이 있었다. 어느 권위가 궁극적인 교회의 권위인가하는 문제가 계속되었다.⁶³⁾

그런데 성경에 대한 강조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참된 권위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에 대항하여 놓았고 교회의 전통위에 두었다.⁶⁴⁾ 루터가 성경의 권위를 전통위에 둔 것은 갑작스럽게 된것이 아니라 중세기 오랫동안 성경에 대한 강조로 인한 것이었다.

로마 카톨릭이 내세우는 전통에 대한 루터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은 교회가 성경을 창출했으며 정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고 했다.⁶⁵⁾ 이러한 주장에 대해 루터는 성경이 교회를 양육하여 만들어 냈으며 성경이 교회위에 있다고 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전통(사도직)이 교회를 생산한다고 주장한것에 대하여 루터는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며 항상 호전될 것인데 교회가

62) 홍 치모 편, 「칼빈과 낙스」, 52.

63) 최 현수, 34.

64) 최 현수, 35.

65)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III)」, 70.

말씀을 만드는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교회가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

루터는 말씀이 교회를 성장시키며 말씀이 전통위에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가르쳐지는 곳에 옳바르고 진정한 교회가 있는데 이는 진정한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유지되며 결코 유전의 계승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⁶⁶⁾

루터는 전통이 오류를 범했다고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전통보다 더, 교회보다도, 신학자보다도, 루터 자신보다도, 더 위에 있는 성경의 권위로 복음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되돌아가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⁶⁷⁾

루터는 카톨릭 전통들이 지닌 권위를 배격했는데, 성경의 권위만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전통주의는 그것이 지니는 “도덕주의”⁶⁸⁾와 “철학화”⁶⁹⁾로 인하여 오염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계시의 명료성을 둔화 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루터는 전통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전통 그 자체나 전통의 옳바른 사용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잘못된 남용에 대하여 배격한다고 하였다.⁷⁰⁾

루터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전통의 도움을 받아 그의 신학을 하였다. 루터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 전통은 합법적이라고 함으로 전통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루터와 전통과는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66) 휴 T. 커어, 190.

67)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III)」, 70.

68) 교부들은 성경을 “도덕주의” 개념에서 이해했을 뿐 성도가 되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69) 기독교 신학과 고대 철학 사이에서 철학이 신학에 침투했다는 것.

70) 최 현수, 40.

칼빈은 루터보다 더 조직적인 사유로써 자기 논증을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하여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해와 또한 로마 카톨릭의 전통관에 대한 비판을 위한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⁷¹⁾

칼빈은 중세기의 교회의 전통을 반 성경적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먼저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며 최종적인 권위로써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두번째, 로마교회가 사도적 계승의 권위를 내세워 성경을 해석할 때 부분적으로 참빛을 소멸시키고 “부분적으로 그 빛을 제지시키는” 악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번째, 교회는 성경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지 못하며 단지 계시하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권위 뿐이라고 하여 교회가 성경에 의해서 승인받은 것이지 성경이 교회에 의해서 승인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 기원과 한계를 찾는다.⁷²⁾

네번째, 수많은 교회회의들이 성경에 반대되는 교리를 선포할 만큼 권리를 남용하였기에 모든 교회회의가 반드시 참된 회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든 교회회의의 결정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⁷³⁾

다섯번째,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인 성령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 의거하여 역사하시기에 성령이 성경의 범위를 넘어 교회의 전통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로마 교회의 주장은 성령이 주신 계시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⁷⁴⁾

71) 홍 치모, 「칼빈과 나스」, 58.

72) Ibid, 66.

73) Ibid, 67.

74) Ibid, 69.

당시 최고 교부 학자들중 한 사람이라는 견지에서 그의 원리들을 실행했던 칼빈은 결코 교부들을 거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떤 제한 아래에서 안내자와 교사로서의 교부들의 권위를 인정했다.⁷⁵⁾

그러나 칼빈은 어느 경우에서나 성경적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 최종적 권위가 되며 따라서 이러한 교부들 까지도 언제나 반드시 성경에 종속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⁷⁶⁾

루터와 칼빈의 전통관은 성경이 전통과 교회위에 있는 유일한 최고의 권위로 받아 들인 것에 있어서는 같은 견해를 가졌으나 루터가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 전통을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전통을 수호하려는 입장에 비해 칼빈은 성경적 근거가 분명한 전통만 보존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D. 신구약 성경의 관계

루터는 기록된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 그의 종교개혁 이념은 교회를 그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 계획에 다시 일치시키는 것이며 교회를 전 성경과 조화시키는 운동인데⁷⁷⁾ 교회의 창설자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全)성경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루터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는데 구약과 신약을 옛 언약과 새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구약은 그의 주석에서, 신약은 그의 설교에서 잘 취급되어있다.⁷⁸⁾

75) Ibid, 58.

76) Ibid, 60.

77)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128.

78) 황 승룡, 156.

루터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율법과 복음, 계명과 약속의 관계로 보았다.

구약이 율법에 관한 묵시적 교훈서로 신의 계명과 율법, 그리고 그 율법들과 계명들을 지키거나 또는 지키지 않는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것⁷⁹⁾ 외에 사람에게 죄를 보여주며 선을 촉진하는 율법에 대한 것, 즉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약속과 은총이 있다고 하였다.

신약은 죄의 용서를 통한 그리스도로 부터의 은총과 평화의 선포로서 복음과 신의 약속 그리고 그 복음과 약속을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⁸⁰⁾ 신약성경은 복음서이며 은총서여서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음적이고 신적인 뉴스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신구약의 중요성에 있어 차등을 두지 않았다.

칼빈은 루터와 같이 신구약 성경을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사이에는 근본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속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구약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신약성경은 이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에 있다.⁸¹⁾

칼빈은 신구약성경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나 본질적인 깨달음을 주기위하여 성령에 의해 사용된 방법, 즉 선포한 형식에서 상이하다고 하였다.

79) 휴 T. 커어 편저, 53.

80) Ibid.

81)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III)」, 202.

루터와 칼빈은 다같이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가치와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였으나 루터가 율법과 복음에 관점에서 신구약을 지나치게 구분한 반면 칼빈은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E. 성경의 내용

1. 그리스도

루터는 성경의 다양한 면모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양함 가운데서 성경을 하나님의 커다란 통합체로 보았다. 성경이 오직 하나의 내용, 즉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보았다.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일 시키는 원리로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루터는 성경이 그리스도에게 관계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종종 말하면서 정전(正典)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며⁸²⁾ 성경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다룬다고 하였다.

성경의 내용이 복음과 율법을 포함하는데 율법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임무를 하는 것과 복음이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의 구원이 달려있는 은혜의 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성서의 유일한 내용이며 전체적인 내용이라고⁸³⁾ 보았다.

82) 지 원용, 「루터의 사상: 신학과 교육」, 133.

83) 최 현수, 44.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원천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하시고 죄인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계시를 증거하시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이라고⁸⁴⁾ 하였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대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에 모든 성경연구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한다고 그리스도를 강조 하였다.

루터와 칼빈은 성경의 초점이 그리스도인 것을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루터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비해 칼빈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2. 율법과 복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형태로 인간에게 온다고 하였다.

루터는 한평생 옳바른 신학을 위한 열쇠로서 율법과 복음의 다른 점을 강조하는 일에 지칠줄 몰랐다. 그는 인간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짓는 일은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⁸⁵⁾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로서 자연법 안에 나타나 있고 시민법적인 제도, 즉 가족과 국가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인데 율법 그

84) 프랑시스 웬델, 167.

85) 카터 린더버그, 38.

자체로는 선하나 인간의 타락 이후 우리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된다고 하였다.⁸⁶⁾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⁸⁷⁾

루터는 이 율법과 복음이 상반된 명제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율법이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서도 발견된다고 했다. 루터가 생각하기로는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율법과 복음은 기능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두 형태이며 그것들이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구분없이 나타나며 어떤 때는 한 말씀이 동시에 두 기능을 감당한다.⁸⁸⁾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율법과 복음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다. 그리스도는 신약과 복음에서만 아니라 구약과 율법에서도 나타나며 율법과 복음은 내용적으로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율법과 복음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복음하에 사는 우리의 눈으로 가까이 보는 것을, 율법하에서는 휘장이 사이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자세히 보지 못한 점에 있다.⁸⁹⁾

86) 후스토 L. 곤잘레스, 76.

87) 후스토 L. 곤잘레스, 77.

88) 최 현수, 266.

89) 요셉 하트니안 편저, 「칼빈의 조직 신학 해석」 칼빈 총서, 제1권 2집.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기독교 문화협회, 1986), 112.

그러나 율법은 복음보다 희미하기는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올바른 일인가를 모든 사람이 율법에서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음은 율법보다 탁월하고 영원한 것인데 비해 율법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율법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또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제거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얻을 뿐이다. 여기에 율법이 사망을 주는 의미가 있다.

루터와 칼빈은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간의 죄, 타락, 절망을 보여 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과 사회의 질서를 위해 사악한 자를 제거하는 기능면에서는 같았다.

칼빈은 여기에 덧붙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는 깨뜨렸으나 율법의 효용성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믿는 자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IV. 결론

종교개혁은 성경에 대한 이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행해지고 있는 성경연구의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우기 성경해석을 지배하고 있는 신학적 원리들의 기초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교회 위의 성경의 절대적 권위는 전승(tradition)의 권위라는 불분명한 개념에 의해 점차 상대화 되어 오고 있었다. 그 결과 성경은 더 이상 자기 본능적(self - Authenticating)인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마침내는 자기 설명적(self - Explanatory)인 말씀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¹⁾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고 사람의 말이 권위를 가로챘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에 들어섰다.

이것은 루터와 칼빈에 의한 종교개혁을 통해서였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원상대로 회복코자 한 것이다. 그들은 철저히 성경에서 출발하였고 성경 안에서 행하였고 성경 중심적이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찾아보려면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역사상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는 운동이고 그 정신은 곧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에서 나온다.

1) T.H.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 지찬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0), 160.

앞서 살펴본대로 루터와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같은 견해를 취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경관의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사상적인 배경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루터는 죄와 구원의 문제로 몸부림치다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였다. 그 뜨거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결정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칼빈은 루터와 같이 극적인 체험을 겪지는 않았으나 그는 기독교 인문주의 교육을 일찌기 받았다. 그의 인문주의 교양과 지식은 또한 그의 성경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들의 성경관의 상이점은 같은 방향으로 비추는 불밝기의 차이와 같은 강조상의 차이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논의를 통하여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은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에 대해 둘 다 같은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에 강조를 둔 것에 비해 칼빈은 기록된 말씀에 강조를 두었다.

그들은 성경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 정확무오한 말씀이며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같이 보았으나 루터는 성경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관련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강조한데 비해 칼빈은 하나님 말씀 자체로서의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강조했다.

성경이 전통위에 있는 유일한 최고의 권위로 여긴 것은 같았으나 루터

가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전통을 수용한 반면 칼빈은 성경이 허용한 전통만 받아 들였다.

신구약 성경의 관계에 대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구분하려고 했던 반면 칼빈은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연속성있게 보려고 했다.

루터는 성경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했고 칼빈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루터는 복음과 율법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한 반면 칼빈은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정 정숙, 「종교개혁가들의 교육사상」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89).
2. 최 현수, “루터의 종교개혁과 성서” (신학석사 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88).
3. 박 형룡, 「성경해석의 원리」 (서울:도서출판 엠마오, 1991)
4. 유스토 L. 곤잘레스, 「증세교회사」 서 영일 역 (서울 : 은성,1990).
5.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 이 형기.차 중순역(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6. 휴 T. 커어 편저, 「루터신학개요」 김 영한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출판국, 1991)
7. 루이스 W. 스피츠, 「종교개혁사」 서 영일 역(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9).
8. 홍 치모 편, 「칼빈과 나스」 (서울 : 성광문화사, 1991).
9. 도날드 K. 맥킴 외 공편,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칼빈총서 1집 9권,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 기독교 문화협회, 1989).
10. 지 원용, 「루터의 사상 : 신학과 교육」 (서울 : 컨콜디아사, 1961).
11. 지 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 컨콜디아사, 1965).
12. 이 환봉, “성경 권위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 「고신대 논문집」
13. 프랑시스 웬델, 「칼빈의 신학서론」, 칼빈 총서, 제 1집 1권,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울 : 한국 기독교 문화협회, 1986).

14. 홍 치모, "Calvin 과 Knox", 「신학지남」 58권, 2집 228호 (1991. 여름) : 125f.
15. 윌리엄 팩 암스트롱,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 칼빈총서, 제 1집 5권,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울 : 한국 기독교 문화협회, 1986).
16. 황 승룡, "종교개혁자들과 신 정통주의 자들의 말씀론 비교", 「기독교 사상」 327, (1985.9).
17. 카트 린더버그, 「말틴루터」 이 현주 옮김 (서울 : 컨콜디아사, 1990).
18. 이 장식, 「기독교 사상사」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77).
19. 도널드 디 머레이 편집, 「루터에게 듣는다」 윤 종석 옮김 (서울 : 두란노 서원).
20. 사무엘 던 편저, 「요한 칼빈의 진수」 김 득용 옮김 (서울 : 성광문화사, 1985).
21. 존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 용화 역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0).
22. 요셉 하트니안 편저, 「칼빈의 조직신학 해설」 칼빈총서 제 1권 2집,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 기독교 문화 협회, 1986)
23. T.H.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 지찬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0).